

작품해석과 현장성 어우러진 문학기행의 ‘교본’

《문학기행 — 명작의 무대(전2권)》 쓴 김 훈씨

문학기행은 말 그대로 문학작품의 무대를 찾아 떠나는 일이다. 작품의 살과 피와 숨결을 온몸으로 느끼는 문학기행은 작가가 창조한 허구의 세계를 실제화하고 가시화하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문학기행을 통해 우리는 작품의 배후를 보고 그 배후에 도사린 진실을 목도한다. 문학기행 이후 작품이라는 ‘신화’는 비로소 우리 곁으로 내려와 현실로 작동한다.

‘벌거벗은 현장’ 과 대면해야 하는 괴로움

《문학기행 — 명작의 무대(전2권)》(한국문원)는 김 훈씨(53, 문학 칼럼니스트)가 《한국일보》 문화부 기자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동료인 박래부 기자와 함께 1986년 5월부터 3년 동안 《한국일보》에 매주 연재한 <문학기행 — 명작의 무대> 시리즈를 묶은 것이다. 그들은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전16권)》(솔)를 시작으로 김지하의 시집 《검은 산 하얀 방》(솔)까지 한국문학의 우뚝한 고봉들을 차례로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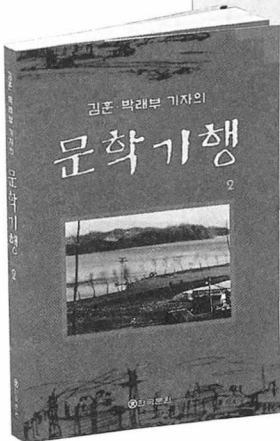
“불안하고 위태로운 작업이었다. 현장과 작품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변용된 현장을 작품을 실마리 삼아 추적하고 탐사하는 작업은 연재기간 내내 우리를 힘들게 했다. 벌거벗은 현실과 현장을 직접 대면해야 한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다.”

《토지》의 평사리에서 <무진기행>의 무진을 지나 《타오르는 강(전7권)》(문순태, 창작과비평사)의 연산포를 돌아 이들의 발걸음은 우리 국토를 종횡무진한다. 텍스트와 현장과 당대 현실을 정밀하게 포착해 한국현대문학의 지도를 세세히 재구성했다. 이 지도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몇가지 원칙을 정했다. 먼저 문학의 보편성을 지역의 특수성에 얽어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텍스트에 대한 철저한 해석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 ‘문학적

《한국일보》 재직 당시 김 훈씨는 박래부 기자와 함께 매주마다 책 한권을 들고 전 국토를 종횡무진했다. <문학기행 — 명작의 무대> 시리즈를 연재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작품의 배경을 찾아 관념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악전고투했다. 그들의 ‘지독한 편견’에서 빚어진 이 책은 저널리즘이 문학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김 훈씨
한국문원/A5신/318면 내외/각 7000원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주관적 진술의 문장을 서슴없이 사용하겠다는 것 등이다.

“무엇보다 우리를 괴롭힌 것은 기사라는 형식이었다. 육하원칙에 기초해 작성해야 하는 기사문은 그것이 가진 제약 때문에 오히려 ‘진실’을 담기에는 부적절하며 문학의 내면을 더듬어 내기는 불가능하다. 문학은 ‘사건’이나 ‘사고’가 아니며, 기계적이고 기능적인 문장으로 말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진실은 언제나 문장 뒤편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연재한 <무진기행>편은 이들 작업의 영역이 현존하는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줬다. 그 대답은 김윤식의 지적대로 “작품의 주제 또는 진리 내용을 소화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문학기행은 작가의 에피소드나 작품 주위를 떠도

는 소문 따위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무진기행>만큼 적당한 작품은 없었다. <무진기행>에 나오는 무진이라는 곳은 존재하지 않는 지명이다.

저널리즘은 문학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연재가 시작된 후, 이 시리즈는 장안의 화제가 떠올랐다. 두 기자의 치밀한 작품 해석과 작가의 생생한 육성, 그리고 현장성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이 시리즈는 저널리즘이 문학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화제가 된 만큼 비난과 힐난도 따랐다. 작품의 선정이 너무 주관적이며 특정 작가와 작품을 편애한다는 말도 들었다.

“신문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객관성’이라는 측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 속에서 객관적으로 평가가 내려진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고심했다. 그 선정 과정에서 우리의 ‘편견’이 작용한 적도 있었다. 기사는 객관적이어야 하지만, 써야 할 것과 쓰지 않아야 할 것을 가린다는 점에서 주관적이기도 하다. 그리고 쓰기 쉬운 작품을 골랐을 때도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고백한다.”

그들은 이 시리즈를 쓰는 동안 말과 더불어 살았다. “조국의 산하에 비였고, 사창가 거리에 비였고, 텍스트에 비웠다.” 이 책은 그의 말대로 “책 속의 길과 세상의 길을 연결시키려는” 두 기자의 고민과 노력이 빚어낸 것이다. — 최갑수 기자